

6 장: “은총에 의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

A. 주제(Thesis).

- 바울을 심장이식 수술을 예를 들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을 설명한다. 한 마디로 “정체성 변화이며, 성격을 대체하는 것이며, 성령이식(a Spirit transplant)이다(251). 이것을 우리는 ‘카리스’(charis), 은혜라 부른다.
- 이 “성령이식” 은혜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에게 모두 주어졌지만 (공기와 숨쉬기), 사람들에게는 거부할 자유가 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울의 용어로 “신앙”이다. 신앙은 하나님의 비폭력적인 분배의 정의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B. 문제점(Problems).

- 종교개혁 핵심 사상: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은총(*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
구원은 인간의 결단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주장인데...
 -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일차적으로 내세의 문제=> 어떻게 천당에 갈까? “행위(works)와 율법(law)”인가 “은총(grace)과 신앙(faith)”인가? (대조적 이해로 발전)
 - 반(反)유대교적(law), 반(反)로마 카톨릭(works)=> 개신교는 “은총(grace)과 신앙(faith)”
- 로마서 내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 간의 갈등.

C. 논점(Argumentation).

1. 로마서의 바울

- 종교개혁으로부터 바울을 끌어내어 1 세기 로마제국의 세계에 원위치시키고 생각. 바울은 로마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언약의 유대교 속에 있는 크리스천 유대인이다(214).
- 로마서는 바울의 후기 작품으로 알지 못하는 공동체에게 쓴 유일한 편지=> 예수와 복음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엿볼 수 있다.
- 은총에 의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
 -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일차적으로 내세의 문제=> 어떻게 천당에 갈까? “행위(works)와 율법(law)”인가 “은총(grace)과 신앙(faith)”인가? (대조적 이해로 발전)
 - 바울은 우리 자신과 세상의 변화에 대해 말한다(p. 213). “행위없는 신앙”(이것은 불가능) 얘기가 아니라, “신앙없는 행위”에 대한 말.

2. 바울 신학의 특징

- 분열된 세상의 치유
 - 남존여비, 노예제도 등 분열에 맞서 철저한 평등성 강조 (갈 3:27-29)=> a united and peaceful earth (215).
 - 로마서 구조: 서론(1:1-5)—①이방인/유대인(1:16-8:39)—②유대인/크리스천(9:1-11:36)—③크리스천유대인/크리스천이방인(12:1-15:21—결론(15:22-16:27)

- 로마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승리를 통한 평화(peace-by-victory)에 맞서 정의에 의한 평화(peace-by-justice)를 선포.

-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합

- "하나님의 의(義)"=> 의(righteousness)와 정의(justice)는 바울에게 있어 동의어. Cf. 암 5:24
- "복음" 속에 "하나님의 정의"(the justice of God)가 나타났다. (아마도 저자는 롬 3:21 절을 염두에 둔 듯: But now, apart from law, the righteousness of God has been disclosed, and is attested by the law and the prophets).
- 여기서 의/정의는 보복적 정의(retributive justice)가 아닌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 초점이 공정한 처벌이 아닌 공정한 분배.
- "분배적 정의는 하나님의 본성이며 본질이며 성격이다"(219). 고로 하나님을 독점할 수 없다!

3. 유대인으로부터 그리스인에게 이르기까지

-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하나님의 법(a common divine law for all humanity).
 - 유대인: 약속과 전통, 곧 언약을 통해
 - 이방인: 가슴과 양심, 곧 피조물을 통해
- 유대인 눈을 통해 이방인을 정죄: 우상숭배, 난잡함/동성애
 - 근거: "자연스럽지 못함"(unnatural). Q: 누구의 눈에? 어떤 잣대로?
 - 당시에 모르던 사실 하나. 성적 본능이 생물학/몸/생식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지만, 오늘날에는 화학/두뇌/호르몬에 의해 결정.
 - 인간의 문명이 정상적으로 여기는 것(the normalcy of human civilization), "이 세상의 지혜"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는 지적. (우리들 표현으로, 지배이데올로기의 문제점).

4. 하나님의 의(The righteousness of God)

- 다시 읽기: 그리스도의 희생제물(sacrifice)을 통해서 인간이 의롭게 되도록(justification)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로우심(righteousness)이 주어졌다(롬 3:25-26).
 - 하나님의 의/정의는 분배적 정의로 세상의 변화에 초점.
 - 의롭게 됨은 전가(轉嫁, imputation)가 아니라 변화(transformation)다.
- 희생제물 또한 대신(代身, substitution)이 아니라 참여(participation). 5 장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참조. 희생을 통한 속죄(participatory sacrificial atonement)가 짧게는 롬 3:25 절에 보다 자세히는 6 장 전체에 설명.

5. Grace as free gift

-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선고받다(롬 3:24,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 값없이 주시는 선물 같은 것은 없다. 값없이 제공하는 것(free offer)만 있을 뿐. 예) 공기, 호흡
 - 신앙은 전적인 헌신. 값없이 거저 제공하는 것을 거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선물이 됨. 마찬가지로 은총역시 신앙으로 받아들임. 은총(공기)과 믿음(숨쉬기).

- 신앙은 동의(assent)를 넘어 참여와 헌신. 신앙(πίστις)은 생활방식 전체를 헌신하는 것(230).
- 로마서 (그리고 바울서신)에서 행위(works)란 신앙(faith)과 대조된 말이라기 보다는 “신앙 없는 행위”(works-without-faith)와 “신앙과 더불어 행위”(faith-with-works)를 줄인 말로 이해해야.
 - 법/율법과 죄. 법은 정보를 주지만 그 자체로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 죄와 죽음. 여기서 죽음이란 생의 마침이 아닌, 억울한 죽음, 부당한 처형, 곧 십자가로 상징된 끔찍한 죽음을 뜻한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시킬 원수는 죽음(고전 15:26).

D. 평가(Critique) 및 생각해 보기

- 두 저자의 로마서 구조분석과 이해는 간단명료. 화합을 주제로 큰 그림(이방인/유대인)으로부터 작은 그림(Christian Jews/Christian non-Jews)까지 진행이 매끄럽다.
-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들, 곧 바울의 선교전략/대상이 된 사람들을 “(신앙 없는) 행위”로 구분한 것은 탁월한 발상이다. 유대교에 근본적으로 올바른 무엇인가가 있기에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개종하는 앎은 “죄”라 여긴 것이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church goers)를 빗댄 말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로마서에서 바울의 요지다.

생각해 보기

1. “신앙없는 행위”—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면, ...
2. “법—여기서는 모든 법—은 정보를 알려주지만, 변혁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235). 신앙과의 차이는?
3.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롬 15:1).